

201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필답시험

국 어

< 2016. 7. 16(토) 10:00~11:30 >

감독위원 확 인	
-------------	--

모집단위		전형유형	재외국민
수험번호		성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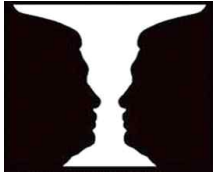
☐ 답안작성 유의사항

- 가. 답안은 별도로 주어진 OCR 답안지에 작성해야 합니다.
- 나. 답안작성을 위한 추가 시간은 주어지지 않으며, 시험 시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다. 답안은 검정색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 라. 답안 수정시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 답안을 수정한 경우, 문항번호에 ‘빨간색 플러스펜’으로 서명해야 합니다.
- 마. 답안지 상단에 본인의 인적사항(모집단위, 성명, 수험번호 등)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감각과 지각은 한편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감각은 감각 기관을 통해 끊임없이 감각 자료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엄청난 양의 감각 자료와 만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감각 자료들을 끊임없이 여과하여 일부만 이용한다. 만약 감각을 여과하는 기제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너무 혼돈스러울 것이다.

감각 세계가 이처럼 여과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각 능력에 기인한다. 뇌는 감각을 여과하고 조직하는 많은 전략들을 가진다. 우리가 이용하는 최고의 지각적 전략은 ㉠'전경-배경 관계'로 불리는 것이다. 전경-배경의 관계에 대한 잘 알려진 보기가 [그림]에 있다. 이 [그림]에서 당신은 즉각적으로 무엇을 보게 되는가? 어떤 사람은 흰 꽃병을 보는 반면, 어떤 사람은 마주보고 있는 두 얼굴을 볼 것이다. [그림]을 보면서 꽃병과 두 얼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꽃병을 보았다면 두 얼굴은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두 얼굴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 꽃병이 사라져 보인다. 이처럼 우리의 지각은 감각 세계를 전경과 배경의 관계로 나누려고 하는 타고난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림] 전경-배경 관계

다른 지각적 전략으로 '지각 항등성'이 있다. 지각 항등성은 대상들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변화될지라도 대상의 특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아는 우리의 지각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혼돈스러운 감각들로부터 질서와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된다. '형태 항등성'이 그 중 하나이다. 지금 일어서서 의자 주위를 걷는다면, 당신의 망막 위에 투영되는 의자의 이미지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변한다. 그러나 당신은 변화되지 않는 의자의 형태를 지각한다. 만약 모든 물체들이 시각의 각도가 변할 때마다 다르게 지각된다면 이 세상의 공간들이 얼마나 혼돈스러울지 상상해 보라. 또 다른 기법은 '크기 항등성'이다. 크기 항등성은 어떤 대상이 우리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상관없이 원래 크기로 보게 함으로써 그 대상이 동일한 대상임을 지각하게 한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우리가 활용하는 전경-배경의 관계는 타고난 것이다.
- ②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지각되지 않는 많은 양의 감각 자료를 가진다.
- ③ 우리가 감각 기관을 통해 받아들이는 자료들은 세계를 지각하기 위한 원재료이다.
- ④ 우리의 감각은 감각 자료들을 선택하고 조직하며 해석하는 능동적 역할을 수행한다.
- ⑤ 우리의 지각은 혼란스러운 감각 자료들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2. 윗글에 나온 '지각 능력'을 가장 잘 표현한 속담은?

- ①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
- ②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 ③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④ 제 눈의 검볼은 안보이고 남의 눈의 티만 보인다.
- 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3. ㉠과 관계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 가. 찾고자 하는 사람을 군중 속에서 알아볼 수 있다.
 나. 투명한 물통 속에 꽂아둔 곧은 막대가 휘어져 보인다.
 다. 군인들은 초목들로부터 자신을 잘 구분하지 못하게 하려고 위장복을 입는다.
 라. 어린 아이가 멀리 떨어진 자동차를 장난감으로 여겨 가지겠다고 떼를 쓰기도 한다.

- ① 가, 나
- ② 나, 다
- ③ 가, 다
- ④ 가, 나, 라
- ⑤ 나, 다, 라

[문제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자연과학은 다양한 실험 장비들이 쏟아내는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런 데이터는 인간의 선입관이나 편견이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객관성’이라는 덕목은 자연과학 분야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인정된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런 데이터를 객관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러한 의미의 객관성이 자연과학 분야에서 항상 절대적 덕목이었을까?

18세기의 자연과학자는 ㉠‘자연에 대한 충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덕목을 추구하였다. 그들은 가장 대표성 있는 것을 기준으로 자연의 이상적 모습을 담아내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여러 개의 샘플을 관찰한 뒤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모습 뒤에 숨겨진 자연의 규칙성과 전형성을 찾아내는 작업에 열중하였다. 이전 시대에는 ㉡‘베이컨주의’의 영향 하에 모든 종류의 특이 현상과 개별적인 독특성을 선입견 없이 기록하려고 했지만, 18세기의 자연과학자는 이에 환멸을 느끼면서 자연에 대한 충실, 보다 정확히 말해 자연의 정수에 충실하려는 경향이 생겨났던 것이다.

19세기 중반부터는 새로운 경향이 생겨났는데, 그것은 1830~40년대에 발명되고 발전한 사진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일례로 유체 역학을 연구하던 학자는 액체 방울이 바닥에 부딪혀 튀는 모습에서 발견해 낸 규칙성과 대칭성이 사진술을 통해 얻어지는 이미지에 결코 나타나지 않음을 발견하고는, 그간 얻어진 자연의 이상적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당시 학자들은 개별성과 복잡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카메라 사진술이 부상했는데, 이 같은 기계적 재현 기술은 처음부터 자연을 더 정확히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나 주관성을 상당 정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학자에게 선호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기계적 객관성’이라는 덕목이 생겨나 자연과학 분야에서 한 동안 우위를 점했지만, 20세기에 이르자 또 다른 덕목이 등장한다. 20세기 전반기에 과학자는 과학 활동에서 연구자의 주관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사 가능하더라도 과학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목적도 달성하기 힘들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에게는 연구 목적에 맞게 자료를 다듬고 분류할 수 있는 ㉣‘훈련된 판단력’이 요구된다. 이제 자연과학적 사실을 재현할 책임은 실험 장비가 아니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간에게 다시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4.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18세기에는 자연에 대한 관찰과 실험 결과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자 하였다.
- ② 현대의 자연과학자는 실험 장비의 데이터에 의존하는 기계적 객관성을 추구한다.
- ③ 베이컨주의자는 자연에 대한 법칙적 이해를 위해 관찰과 실험의 이상적 결과물을 보고하였다.
- ④ 19세기에는 사진술이 자연에 대한 관찰과 실험 결과를 가장 정확히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선호하였다.
- ⑤ 20세기에는 경험과 훈련을 거쳐 습득한 전문적이고 암묵적인 판단을 과학 활동의 필수 요소로 여긴다.

5. 윗글에 나온 ㉠~㉣ 가운데 성격이 유사한 것들끼리 짝 지은 것은?

- ① ㉠과 ㉡
- ② ㉠과 ㉢
- ③ ㉡과 ㉢
- ④ ㉡과 ㉣
- ⑤ ㉢과 ㉣

6. ㉣의 사례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 가. 태양 자기장에 관한 사진 이미지를 판독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자는 자신의 전문 지식과 판단에 의존한다.
- 나. 우유 방울의 충돌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보면 교과서에 나타난 완전하고 이상적인 대칭성과는 대비되는 비대칭적인 충돌 모습이 찍힌다.
- 다. 눈꽃에 대한 현미경 이미지는 특정 눈꽃의 개체적 특징을 고스란히 남겨둬으로써 인간의 개입을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자연을 담아낸다.
- 라. 식물도감의 그림은 특정 식물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식물에 대한 여러 번의 관찰을 통해 해당 종이 나타내는 보편적 특징을 그리는 것이다.

- ① 가, 나
- ② 나, 다
- ③ 다, 라
- ④ 가, 나, 라
- ⑤ 가, 다, 라

[문제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 이후 현대 회화의 특징은 이전의 예술이 추구했던 모방 및 재현의 전통에서 벗어나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 회화는 인상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후기 인상주의를 기점으로 추상의 세계로 나아갔다. 후기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세잔은 현대 회화를 추상으로 이끈 출발점이 되었다.

㉠인상과 화가들은 빛과 함께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색채의 미묘한 변화 속에서 자연을 묘사하고자 했다. 즉 그들의 주요 관심은 짧은 순간에 화가가 시각적으로 지각한 사물을 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잔은 빛의 조건에 따른 표면의 색이나 형태가 아니라 대상의 본질적이고 견고한 형태를 담아내고자 했다. 그는 삼각형과 사각형, 또는 원형 같은 가장 기본적인 형상들에서 모든 외양이 분열되어 나온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세잔은 자연을 구형, 원통형, 원추형의 기하학적 형태로 단순화하여 자연의 모습을 작가의 감각으로 재구성하려 했다. 기하학적 조형 원리를 통해 사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투영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눈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미술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즉 그는 자연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려는 대신 화가의 눈과 감성, 구성력을 통해 화면에 ‘재창조된 자연’을 담아내고자 했다. 또한 그는 전통적인 원근법을 버리고 여러 방향에서 바라본 사물들을 화폭에 그려 냈다. 예를 들어 정물화에서는 눈높이에서 바라본 바구니, 위에서 내려다본 향아리 등 ‘다시점(多視點)’에서 바라본 사물들의 모습을 한 화면에 담았다.

자연의 모습을 작가의 감각으로 재구성하려는 세잔의 회화적 경향은 피카소와 브라크로 대표되는 ㉢입체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물체를 완전한 형태로 표현해 내기를 원했는데, 그들에게 완전한 형태란 사방에서 본 것들을 하나로 종합하여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때 이들이 가장 주목한 것은 세잔의 기하학적 조형이었다. 그들은 형태를 면으로 단순화했으며 세잔의 조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연을 더욱 단순화, 추상화했고, 마침내 자연을 육면체의 입체로 바꾸어 표현했다. 마티스는 1908년 전시회에서 브라크의 그림을 보고 ‘입방체(cube)로 만들어진 그림’이라고 했고, 이를 계기로 입체파, 즉 큐비즘(cubism)이란 용어가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입체파는 시점을 고정시켜 한 방향에서만 보는 사물의 본질을 알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세잔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 모습을 한 화면에 담아내는 다시점의 방식을 활용하여 삼차원의 대상을 이차원의 평면 회화로 표현하였다.

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재현과 추상은 사실상 같은 작업이다.
- ② 인상파는 사물을 존재하는 그대로 재현하려고 했다.
- ③ 세잔은 원근법을 새롭게 재해석하여 발전시켰다.
- ④ 입체파는 자연의 모습을 작가의 감각으로 새롭게 표현하려고 했다.
- ⑤ 세잔이 입체파에게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 요소는 다시점 방식이다.

8. 윗글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은?

- ① 세잔의 회화에 대한 상반된 평가
- ②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의 공통점
- ③ 세잔의 회화와 입체파 회화의 차이점
- ④ 세잔의 회화가 현대 회화에 미친 영향
- ⑤ 세잔 회화의 시기별 특징과 그 변화 양상

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대상의 순간에 주목했다면 ㉡은 대상의 본질에 주목했다고 할 수 있군.
- ② ㉡을 기점으로 ㉠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현대 회화는 추상으로 나아갔군.
- ③ ㉠과 ㉡은 전통적인 원근법에 따라 고정된 시점에서 대상을 표현하는 것을 거부했군.
- ④ ㉠과 ㉡은 모두 모방과 재현의 전통에서 벗어나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군.
- ⑤ ㉢은 ㉡의 기하학적 조형에서 더 나아가 자연을 더욱 단순화, 추상화했군.

[문제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치학자들은 정치와 정치 행위의 본질에 관한 두 가지 일반 모델로 ‘갈등 해결로서의 정치’와 ‘공동체 형성으로서의 정치’를 제시한다. 이 두 모델은 정치 세계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첫째 모델의 옹호자는 폭력적 갈등이 사회에 잠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그리고 국가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보고, 갈등을 극소화하는 합법적 방법에 관심을 가진다. 둘째 모델의 옹호자는 정치를 공동체의 선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본다. 그리고 국가가 공동체의 선을 형성하기 위해 여러 사회 집단을 조정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수많은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느 모델도 특정 형태의 정부를 더 선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론적으로 군주제나 민주제가 갈등을 극소화하는 데 똑같이 효율적일 수 있으며 혹은 공동체의 목표를 촉진하는 데도 똑같이 효과적일 수 있다. 더구나 어느 모델이 특정한 경제 형태를 지지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는 이론적으로 두 모델 모두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한 모델을 선택하는가? 많은 정치학자들은 한 모델이 다른 모델보다 이론적으로 우월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한 모델을 선호하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설명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갈등 해결로서의 정치 모델은 개인의 다양성, 폭력적 갈등의 가능성, 평화적인 갈등의 해결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 모델은 갈등이 해결되는 방법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 지향적 모델’로서 사회 정의가 갈등 해결의 절차를 통해 실현된다고 보고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를 정치 행위의 목표로 삼는다. 반면에 공동체 형성으로서의 정치 모델은 조화로운 인간관계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국가 권력을 이러한 목표 실현의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때로는 방해자로 여긴다. 따라서 이 모델은 좋은 인간관계의 달성에 중점을 두는 ‘(㉡) 지향적 모델’이다. 그래서 이 모델은 인간의 협동이나 공동체의 형성과 같은 훌륭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 즉 ‘선으로서의 정의’를 지향한다.

10. 위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가의 역할과 의미
- ② 공정성과 선의 관계
- ③ 정의를 보는 두 관점
- ④ 정치의 두 모델이 가진 장단점
- ⑤ 정치의 두 모델과 정의의 관계

11. ㉠, ㉡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을 순서대로 짝 지은 것은?

- ① 과정, 결과
- ② 물질, 정신
- ③ 효율, 형평
- ④ 갈등, 조화
- ⑤ 질서, 자유

12. 위글의 둘째 모델이 선호할 내용만 고른 것은?

<보기>

- 가. 법 체제 강화
- 나. 양보심, 이해력 함양
- 다. 토론, 토의 문화 확대
- 라. 다수결 원리 확대 적용

- ① 가, 나
- ② 나, 다
- ③ 다, 라
- ④ 가, 다, 라
- ⑤ 나, 다, 라

[문제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른 행동을 기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남성과 여성에게는 생물학적 혹은 심리학적으로 타고난 차이가 있으므로 ㉠생물학이나 심리학이 남녀의 행위 방식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대답이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마가렛 미드(Margaret Mead)는 뉴기니아의 원시 종족들과 그들 사회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제공하였다.

뉴기니아에는 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지만 오랫동안 서로 교류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거리에 있는 종족들도 서로 다른 행위 방식들을 보여준다. 아라페쉬족은 남녀의 행위방식을 구별하지 않는다. 심지어 여성이 아이를 가져야만 한다는 사실조차 경시된다. 그리고 아라페쉬족 남성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부인과 같이 누워, 남성과 여성이 한 몸이라는 자기 암시를 통해, 여성이 출산 과정에서 겪는 피로를 대부분 물려받아 여성의 고통을 덜어준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흔히 남성의 속성으로 여겨지는 공격성은 아라페쉬족에서는 남녀 모두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 종족은 아이들의 젖을 늦게 떼고 특정 아이를 특정 어머니가 기르는데, 이처럼 ㉢아이를 잘 돌보는 양육방식이 공격성의 약화와 관련이 있다고 미드는 설명한다.

한편 멀리 떨어진 곳에 최근에 와서 식인 풍습을 버린 문두가머족이 산다. 이 종족은 남녀 모두 비슷한 정도의 공격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미드는 문두가머족 남녀 사이의 성행위를 서로 멎고 다치는 싸움이라고 묘사하기도 한다. 또한 문두가머 종족은 극도의 무관심 속에서 아이를 기르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어릴 때 물에 빠져 죽는다. 미드는 두 종족의 ㉣공격성에 관한 차이와 아이를 기르는 관습의 차이가 그들의 생계와 직결된 식량 획득 방법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아라페쉬족은 토지를 경작하여 식량을 얻는 반면, 문두가머족은 전통적으로 다른 인접 사회의 사람들을 살해하여 식량을 획득해 왔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겼다는 것이다.

13. 위글의 내용에 일치하는 것은?

- ① 아라페쉬족은 남녀의 성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
- ② 문두가머족 남녀의 공격성이 비슷한 것은 지리적 영향 때문이다.
- ③ 두 부족 사이의 양육방식 차이는 식량 획득 방법의 차이에서 온 것이다.
- ④ 두 부족 사이의 공격성의 차이를 빚어내는 결정적 요인은 양육방식의 차이이다.
- ⑤ 뉴기니아의 원시 종족들은 서로 다른 생활양식을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다.

14.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공격성 정도는 양육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 ② 남녀의 행위 방식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한다.
- ③ 남녀의 공격성 여부가 그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 ④ 남녀의 행위 방식은 그 사회의 생존 방식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 ⑤ 남녀의 성 역할은 그 사회가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15. <보기>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뉴기니아의 A종족은 모기장을 비롯한 생활용품을 다른 부족에게 판매하여 식량을 조달한다. 거래하기 위한 생활용품을 만드는 것은 주로 남성이지만, 상거래는 전적으로 여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종족에서 남녀의 성 역할은 대다수 사회와는 정반대로 나타난다. 남성은 화려하게 몸치장을 하고 수다를 떨며 성적 적극성을 띤 여성에 의해 선택된다. 여성은 지배적이고 공격적이다. 특히 A종족 여자 아이는 집단 안에서 별 탈 없이 잘 자라는 반면, 남자 아이는 어린 나이에 집단에서 내쫓겨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로부터 배척된다.

- ① ㉠을 반박하고 ㉡, ㉢을 옹호하는 사례이다.
- ② ㉠, ㉡을 반박하고 ㉢을 옹호하는 사례이다.
- ③ ㉠을 옹호하고 ㉡, ㉢을 반박하는 사례이다.
- ④ ㉠, ㉡을 옹호하고 ㉢을 반박하는 사례이다.
- ⑤ ㉡을 반박하고 ㉠, ㉢을 옹호하는 사례이다.

[문제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원래 건축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학의 경우에는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에 반발하여 1960년대에 새롭게 시작된 지적 움직임을 1970년대에 명명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등장하게 된 가장 핵심적 이유는 종래의 관습적 문학 양식으로는 20세기 후반, 이 계시록적 시대의 리얼리티를 도저히 묘사할 수 없다는 소위 ‘고갈 의식’ 때문이었다. 코페르니쿠스적 대 사건들의 연속과 대중적 전자 매체의 확산, 정치·사회적 격변 등은 작가들로 하여금 글쓰기에 대한 반성, 언어의 재현 능력에 대한 회의, 그리고 더 나아가 새로운 문학 양식과 새로운 창작 렌즈에 대한 탐색에 눈을 뜨게 해 주었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은 고답적이고 귀족적인 모더니즘과 문학의 현실 반영 능력에 대해 낙관적인 리얼리즘 모두에 대해 반발하며 시작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포스트모더니즘은 동시에 ‘포스트리얼리즘’이라고도 불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곧 포스트모더니즘이, 전통적인 모더니즘과 전통적인 리얼리즘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그것들의 한계는 극복하겠다는 태도를 갖고 시작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더니즘이나 리얼리즘과 가장 현저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는 점은 아마도 ‘질서의 회복’ 또는 ‘총체성의 회복’ 문제일 것이다.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은 서로의 반목과 대립에도 불구하고 둘 다 현재를 무질서와 파편화의 상태로 파악했고, 질서와 총체성이 존재했었던 고전 시대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었으며, 문학적 탐색을 통한 질서와 총체성의 궁극적 회복을 믿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에 오면 더 이상 질서와 총체성에 대한 그러한 향수나 신념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 상황은 그러한 향수나 신념이 사실 얼마나 ‘나이브한’ 것인가를 명백히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이 시대에 질서와 총체성이 회복될 수 있는 척 하는 것은 분명 허위이고 기만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그 질서와 총체성이라는 것이 자칫 어떤 획일적 또는 전체주의적 지배 체제의 미명일 수도 있음을 경계한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파편화된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제시하며 포용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결코 단순한 의도적 허무주의자들이 아니다.

16. 밑줄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은?

- ①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 ②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 배경
- ③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이 대립한 이유
- ④ 포스트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의 차이점
- ⑤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의 차이점

17. 밑줄에 따를 때, ㉠의 근거는 무엇인가?

- ①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학과 현실이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본다.
- ②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학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 ③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과는 달리 귀족적이거나 고답적이지 않다.
- ④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학의 역할이 현실을 반영하는 데 있다는 점을 부정한다.
- ⑤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학이 현실을 반영한다는 주장을 문학에 대한 반역이라고 본다.

18.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라 할 때 ‘포스트’(post-)의 의미는 중요한 논쟁거리이다. 밑글에서 필자가 전제하는 ‘포스트’(post-)의 주도적 의미는?

- ① 모더니즘에 대립된다.
- ② 모더니즘을 포섭한다.
- ③ 모더니즘을 무시한다.
- ④ 모더니즘을 이어받는다.
- ⑤ 모더니즘 뒤에 나타났다.

19. <보기>를 서두에 배치하여 인간 존엄성의 근거를 밝히는 글을 쓰고자 한다. 뒤에 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우리가 “인간은 존엄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도덕적으로 높은 경지에 달한 소수의 인격자들은 존엄한 존재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엄한 존재라는 뜻이다.

- ①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도덕성과 전혀 무관하다.
- ② 인간의 존엄성은 높은 도덕성을 발휘함으로써 획득된다.
- ③ 인간은 도덕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충분히 지닌다.
- ④ 인간이 존엄하다는 명제는 가치 판단이 아니라 사실 판단이다.
- ⑤ 인간의 존엄성은 사회적 지위나 문화적 업적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20. <보기>의 문장을 이용하여 글을 쓸 때, ㉠, ㉡, ㉢의 순서를 가장 잘 배열한 것은?

<보기>

서두: 근대 과학은 수학적 모형에 의하여 자연의 현상들을 설명하려는 입장에서 출발하였다.

- ㉠ 그러나 수량화될 수 있는 물질계의 측면만을 다루기 위하여 고안된 방법이 정신 현상에 그대로 적용될 리가 없다.
- ㉡ 갈릴레오는 우주라는 위대한 책은 수학적 기호들로 씌어져 있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 ㉢ 근대 과학의 방법이 아무 영역에서나 적용될 수 있으며, 그렇게 얻어진 지식만이 진정한 지식이라는 믿음은 잘못되었다.

결말: 인간의 정신 현상을 다루기 위해서는 근대 과학이 배제한 목적론적인 설명을 다시 끌어들이 필요가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